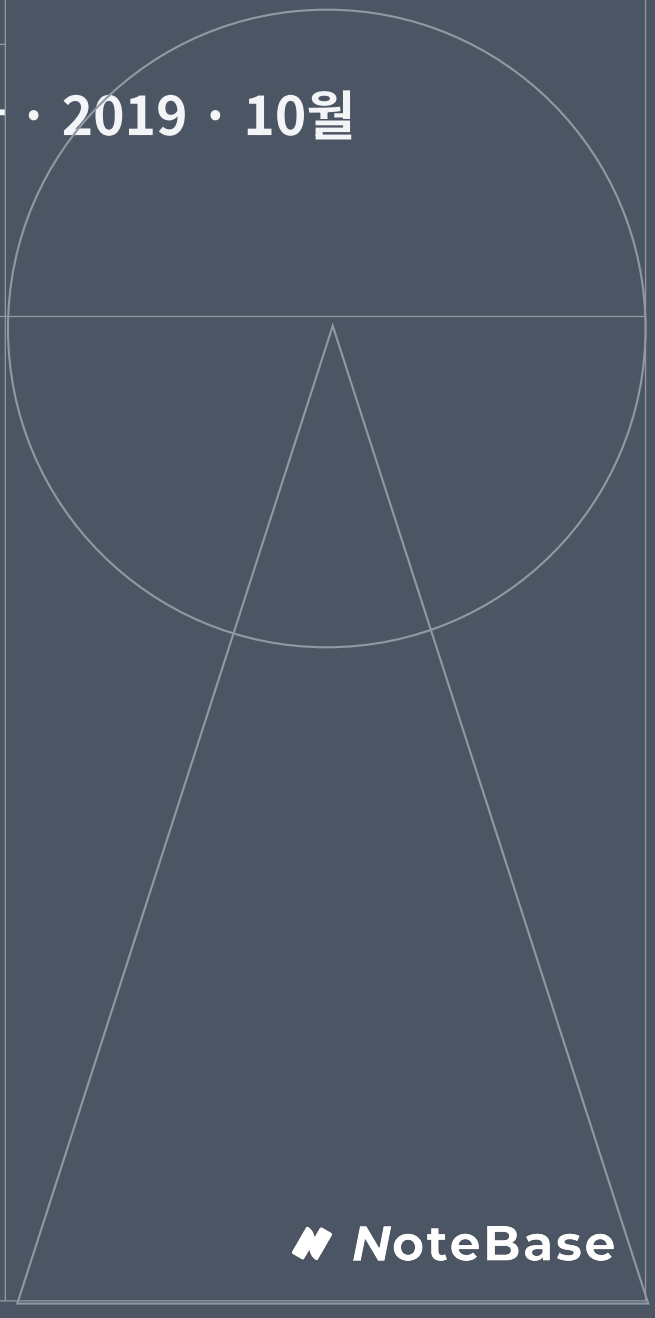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문 1. 같은 왕대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①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 그 일당을 처벌하였다.

②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채용하였다.

③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

④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전국을 9개의 주(州)로 나누고 5개의 소경(小京)을 두는 체제로 정비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통일 신라 중대 왕들의 업적을 왕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며, 특히 신문왕의 개혁과 원성왕의 독서삼품과를 구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정리

신문왕: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며 왕권을 강화하였고, 국학을 세우고 9주 5소경 체제를 정비한 왕이다.
원성왕: 유교 경전 이해 수준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한 왕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김흠돌의 난은 신문왕 즉위 직후에 일어난 반란이며, 신문왕은 이를 진압하여 왕권 강화를 추진하였다. 발문의 기준인 같은 왕대의 사건에 해당한다.

② X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인재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선발한 것은 원성왕 때 실시된 독서삼품과이다. 틀린 연결은 신문왕대의 일처럼 묶인 점이며, 올바르게는 원성왕대의 정책이다.

③ O
국학 설치는 신문왕의 유교 정치 이념 강화 정책에 해당한다. 발문의 기준인 같은 왕대의 사건에 해당한다.

④ O
전국을 9주로 나누고 5소경을 두는 지방 행정 체제 정비도 신문왕의 업적이다. 발문의 기준인 같은 왕대의 사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유교 교육과 관리 선발이라는 점 때문에 국학과 비슷한 시기의 정책처럼 보이지만, 국학은 신문왕, 독서삼품과는 원성왕으로 시기가 다르다. 유교 관련 제도라는 공통점만 보고 묶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통일 신라 왕 업적 문제는 제도의 성격보다 왕별 대표 업적 묶음으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하다. 신문왕은 왕권 강화와 행정 정비, 원성왕은 독서삼품과로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신문왕 = 김흠돌의 난 진압, 국학, 9주 5소경 / 원성왕 = 독서삼품과이다.

NoteBase

문 2. 삼국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개토대왕릉비를 통해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다.

② 단양 신라 적성비에서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③ 사택지적비에서 백제의 한문학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④ 호우총의 청동 그릇을 통해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 시대 문화유산이 보여 주는 역사 정보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광개토대왕릉비는 광개토왕의 업적과 고구려 중심의 세계 인식을 보여 주는 비석이다.
단양 신라 적성비는 신라가 적성 지역을 점령한 뒤 포상과 위무를 기록한 비석으로, 중앙이 지방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사택지적비는 백제 귀족 사택지적이 절을 세운 일을 기념한 비로, 세련된 한문 문장과 서법을 통해 백제 문화 수준을 보여 준다.
호우총 출토 청동 호우는 신라 무덤에서 발견된 고구려계 유물로, 고구려와 신라의 긴밀한 관계와 고구려의 대신라 영향력을 짐작하게 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광개토대왕릉비에는 광개토왕의 정복 활동과 왕권을 높이는 표현이 담겨 있어 고구려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을 파악할 수 있다.

② O
단양 신라 적성비는 신라가 적성을 점령한 뒤 공을 세운 인물들을 포상하고 주민을 위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 관등을 지닌 인물들이 지방 지배에 관여한 사실을 보여 주어 신라의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

③ O
사택지적비는 백제 귀족 사택지적이 절을 세운 일을 기념한 비이다. 격조 높은 한문 문체와 서법이 남아 있어 백제의 높은 한문학 수준을 보여 준다.

④ X
틀린 부분은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표현이다. 호우총의 청동 그릇은 신라 무덤에서 나온 고구려계 유물로, 오히려 신라가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고구려의 영향력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올바르게는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고구려가 신라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호우총에서 유물이 나왔다는 사실만 보고 신라가 고구려를 지배한 것으로 방향을 거꾸로 잡기 쉽다. 이 유물은 신라 무덤에서 나온 고구려계 유물이므로 영향력의 방향을 고구려 → 신라로 읽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국 문화유산 문제는 유물의 출토지보다 그 유물이 어느 나라의 성격을 띠는지와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먼저 본다. 비문과 명문이 가리키는 주체와 영향력의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오답을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호우총 청동 호우는 신라 출토, 의미는 고구려의 대신라 영향력이다.

NoteBase

문 3. <보기>의 밑줄 친 인물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무예가 대장 장문휴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당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① 당이 발해왕을 발해국왕으로 승격하여 책봉했다.
②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③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④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中興)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해 무왕 대무예의 재위 시기 대외 활동을 다른 왕들의 업적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고, 일본에 사신을 보내 외교 관계를 열었던 왕이다.
문왕은 당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며 762년에 발해국왕으로 책봉되었고, 전륜성왕을 자처하며 황상·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한 왕이다.
성왕은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당이 발해 왕을 발해국왕으로 승격하여 책봉한 일은 문왕 때의 사실이다.
틀린 표현은 무왕의 재위 사실처럼 연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문왕이 762년에 발해국왕으로 책봉되었다.

② O
발해는 무왕 때인 727년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보기의 밑줄 친 인물 무예의 재위 시기를 묻는 문제와 정확히 맞는다.

③ X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상,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왕 대에 확립된 황제국적 성격과 관련된다.
틀린 표현은 이를 무왕의 사실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문왕 이후 왕을 황상, 왕비를 황후라 불렀다.

④ X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이라는 연호를 채택한 것은 성왕의 업적이다.
틀린 표현은 무왕 시기의 사실처럼 연결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성왕이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을 연호로 삼았다.

오답 포인트

무왕, 문왕, 성왕의 업적을 서로 섞어 놓은 구성이 함정이다. ①과 ③은 문왕, ④는 성왕의 사실인데 모두 발해 왕의 업적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무왕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 왕 문제는 왕별 대표 키워드로 끊어 판단하면 정리가 쉽다. 무왕은 등주 공격과 일본 외교, 문왕은 발해국왕 책봉과 황제국 체제, 성왕은 상경 천도와 중흥 연호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무왕은 밖으로 팽창한 왕이고, 문왕은 체제를 정비한 왕이며, 성왕은 중흥 연호와 상경 천도를 남긴 왕이다.

NoteBase

문 4. 〈보기〉의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인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모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①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③ 22부의 중앙 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을 5부와 5방으로 정비하였다.
④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서신을 전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무령왕릉 지석에 보이는 '사마왕'이 무령왕임을 파악하고, 무령왕의 대외 교류와 다른 백제 왕의 업적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무령왕: 무령왕릉 지석의 '사마왕'으로 확인되는 왕이며, 양나라와 교류하고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동성왕: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어 왕실 관계를 강화하였다.
성왕: 사비로 천도하고 중앙 22부와 지방 5방 체제를 정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북위에 사신을 보내'와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이 무령왕의 사실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무령왕이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 격파 사실을 알리며 외교 관계를 강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② X.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주체가 잘못되었다. 올바르게는 동성왕이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었다.
③ X. '22부의 중앙 관청'과 '수도와 지방을 5부와 5방으로 정비'한 것은 무령왕의 업적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성왕이 사비 천도 이후 중앙 22부와 지방 5방 체제를 정비하였다.
④ O. 무령왕은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한 사실을 알렸으므로, 무령왕의 대외 정책을 설명한 선지로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백제사는 무령왕, 동성왕, 성왕의 업적이 함께 출제될 때 혼동이 잦다. 특히 '사마왕'을 무령왕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동성왕의 신라 혼인 동맹이나 성왕의 22부·5방 정비를 같은 왕의 업적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석에 적힌 '사마왕'이 보이면 먼저 무령왕으로 연결한다. 그다음 선지는 '양나라 외교와 고구려 견제는 무령왕', '신라 혼인 동맹은 동성왕', '사비 천도와 22부·5방은 성왕'처럼 왕별 대표 키워드로 구분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마왕은 무령왕, 동성왕은 신라 혼인 동맹, 성왕은 사비 천도와 22부·5방 정비이다.

NoteBase

문 5. <보기>의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이때 _____㉠_____ 이(가)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 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처음 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릇 30만 5천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천 7백명뿐이었다.

① 그는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막리지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였다.

② 그는 요하 하류에 있는 안시성에서 공방전 끝에 승리하였다.

③ 그가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5언시가 전해진다.

④ 그는 5천의 결사대를 조직해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살수 대첩의 주역인 을지문덕과 관련 인물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을지문덕: 고구려의 장수로 수의 침입을 막아 살수 대첩을 이끌었고, 우중문에게 보낸 5언시로도 알려져 있다.
연개소문: 대막리지에 올라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고구려의 권신이다.
양만춘: 안시성 전투에서 당 태종의 군대를 막아 낸 안시성주로 전해진다.
계백: 백제의 장군으로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싸웠다.

선지별 해설

① X. '최고 관직인 대막리지에 올라 권력을 장악하였다'는 설명은 연개소문에 해당한다. 을지문덕은 살수 대첩의 지휘관으로 알려진다.
② X. '요하 하류에 있는 안시성에서 공방전 끝에 승리하였다'는 설명은 안시성 전투의 인물인 양만춘에 해당한다. 을지문덕은 수나라의 침입을 막은 시기의 인물이다.
③ O. 을지문덕은 수의 장수 우중문에게 5언시를 보내 물러날 것을 경고한 일화로 유명하다. 살수 대첩과 함께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단서이다.
④ X. '5천의 결사대를 조직해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하였다'는 설명은 백제의 계백에 해당한다. 을지문덕과 시대와 전투가 모두 다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대막리지는 연개소문, ②의 안시성은 양만춘, ④의 황산벌 5천 결사대는 계백으로 연결된다. 모두 한국사에서 자주 출제되는 대표 인물-사건 묶음이어서 을지문덕과 섞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수나라 대군, 살수, 우중문, 30만 5천명 같은 단서가 보이면 먼저 을지문덕을 떠올리면 된다. 이후 선지에서는 대막리지, 안시성, 황산벌처럼 다른 시대의 대표 키워드를 제거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을지문덕 = 살수 대첩 = 우중문에게 보낸 5언시이다.

NoteBase

문 6. <보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임금은 스스로 황상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5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율령에 해당하는 정령에 따라 정치를 운영하였다.

①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 재정기관으로는 사장시가 있었다.

② 6부의 이름은 충·인·의·예·지·신 등 유교의 덕목을 따서 만들었다.

③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다.

④ 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중대성이라 불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해의 중앙 정치 기구와 지방 통치 제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해는 스스로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며 3성 6부와 5경 15부 62주의 체제를 갖춘 국가이다.
정당성은 6부를 거느리며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행정 기관이다.
중정대는 감찰 기관이고, 사장시는 재정과 물자 보관·무역을 담당한 기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중정대는 관리 감찰을 맡은 기관이고, 사장시는 재화의 보관과 무역 등 재정 실무를 맡은 기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2번 O: 발해의 6부는 충·인·의·예·지·신처럼 유교 덕목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3번 O: 발해는 지방 행정에서 부에 도독, 주에 자사, 현에 현승을 두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4번 X: 틀린 부분은 "중대성"이다. 발해에서 정령을 제정하고 6부를 거느리며 정책을 집행한 중심 행정 기관은 정당성이다. 중대성은 발해의 3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선지처럼 최고 행정 집행 기관의 명칭으로 쓰이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발해의 정치 제도 문제에서는 실제 기관명인 정당성·중대성·선조성을 서로 바꾸어 넣는 방식이 자주 나온다.
특히 4번처럼 존재하는 기관명인 중대성을 넣어 두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행정 집행의 중심은 정당성이라는 점에서 틀린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황제 칭호, 독자 연호, 5경 15부 62주가 보이면 먼저 발해를 떠올리면 된다. 그다음 중앙 정치에서는 정당성-6부-국정 총괄, 중정대-감찰, 사장시-재정으로 연결해 보면 선지의 진위를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발해는 정당성이 6부를 거느리고, 중정대는 감찰, 사장시는 재정, 지방은 5경 15부 62주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밑줄 친 '내'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하여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백성들은 난리 통에 그들의 폭골(骸骨)이 들판에 널렸다. 전 임금이 온갖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 와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국가가 멸망하였다. 내가 그 위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하였는데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원하던 일이겠는가? 다만 모든 일을 시작하는 때라 일이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
관리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자기의 녹읍(祿邑)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① 대외적으로 남중국의 오월,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교를 맺었다.
② 발해 왕자 대광현이 망명하자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 주었다.
③ 『정계』, 『계백료서』 등을 통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④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태조 왕건의 대외 정책과 통치 정책을 대표 업적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시조로, 발해 유민을 포용하고 서경을 중시하며 훈요 10조를 남긴 인물이다.
대외 관계에서는 후당·오월 등 중국 세력과 교류하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국내 통치에서는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 정계, 계백료서 등으로 호족과 관리를 통제하고 국가 질서를 세우고자 하였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오월과 교류한 것은 맞지만, 태조의 대외 정책을 일본과 활발히 국교를 맺은 것으로 정리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태조 시기의 핵심은 후당·오월 등과의 외교, 발해 유민 포용, 거란 배척이다. 틀린 표현은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교를 맺었다"이고, 올바르게는 "오월·후당 등 중국 세력과 교류하고 거란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다"이다.

② O
발해 왕자 대광현이 고려로 망명하자 태조는 왕씨 성과 함께 왕계라는 이름을 내려 종실에 편입하였다. 이는 발해 유민을 적극 포용한 태조의 북진 의식과 계승 의식을 보여 준다.

③ O
태조는 삼한 통일 이후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와 신하가 지켜야 할 규범과 예절을 제시하였다. 새 왕조의 통치 질서를 정비하려는 조치로 이해하면 된다.

④ O
태조는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며, 이후 고려의 북진 지향과도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오월이 맞다는 사실 때문에 전체 문장을 맞는 선지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인물-정책 문제에서는 문장 일부가 맞아도 다른 핵심 요소가 틀리면 오답이며, 이 선지에서는 "일본과 활발히 국교"라는 부분이 태조의 대표 정책과 어긋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태조가 보이면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하면 된다. 발해 유민 포용, 서경 중시, 훈요 10조, 사심관·기인, 거란 배척이 태조의 핵심이며, 일본과의 활발한 국교처럼 대표 키워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한 번 더 걸러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태조 왕건 = 발해 유민 포용, 서경 중시, 정계·계백료서, 거란 배척이다.

NoteBase

문 8. 조선시대의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식년시와 특별 시험인 각종 별시로 구분되어 있었다.

② 무과의 경우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합격자가 양산되어 '만과(萬科)'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③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로 구성되어 있었다.

④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시대 과거제의 종류와 각 과의 시행 방식, 특히 잡과의 시험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과는 문신을 선발하는 과거로 식년시와 각종 별시가 있었고 대과는 초시·복시·전시를 거쳤다.
무과는 무관을 선발하는 과거로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의 절차를 두었다.
잡과는 역관·의관·율관·음양관 등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문·무과와 달리 전시 없이 초시와 복시만 시행하였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문과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증광시·별시 같은 특별 시험으로 운영되었다. 선지의 핵심 진술은 맞다.

② O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재정 확보와 정치적 운영 등의 이유로 합격자가 많이 배출되어 문과 합격자를 가리켜 만과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선지의 설명은 타당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문·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로 구성되었다"이다.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지만 문과·무과처럼 전시를 두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잡과는 초시와 복시로 시행되었고 전시는 없었다"이다.

④ O
과거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조선의 신분제적 인재 선발 체제가 근대적 제도로 바뀌는 과정과 연결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잡과도 과거제라는 점만 보고 문과·무과와 같은 3단계 시험이라고 섞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잡과에도 전시가 있었는가"를 정확히 아는지를 노린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과거제 문제에서는 먼저 무엇을 선발하는 시험인지 구분한 뒤, 문과·무과는 전시까지 가지만 잡과는 복시까지만 시행된다는 절차 차이를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문·무과는 전시까지, 잡과는 복시까지만이라는 구분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박서의 지휘 아래 귀주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ㄴ. 배중손이 왕족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했다.
ㄷ. 기병부대인 신기군, 보병부대인 신보군이 조직되었다.
ㄹ.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ㄷ - ㄱ - ㄴ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전기의 거란 침입, 여진 대응, 몽골 침입, 삼별초 항쟁 관련 사건의 선후 관계를 묻는 절차·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ㄹ — 서북면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패해 포로가 된 사건은 거란의 2차 침입 때인 1010년에 해당한다.
2. ㄷ — 신기군과 신보군의 조직은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편성한 숙종 때의 일이다.
3. ㄱ — 박서가 귀주에서 항전한 사건은 몽골의 1차 침입 때인 1231년에 해당한다.
4. ㄴ — 배중손이 왕족 승화후 온을 왕으로 추대한 일은 개경 환도 뒤 삼별초가 항쟁하던 1270년에 일어났다.

왜 이 순서: 거란의 2차 침입이 가장 이르고, 그 뒤 여진 대응을 위한 별무반 조직이 이루어졌으며, 몽골 침입과 삼별초 항쟁은 그보다 훨씬 뒤에 전개되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부분: ㄱ을 가장 앞에 두었다.
- 박서의 귀주 항전은 1231년으로, 강조의 패배와 별무반 조직보다 뒤의 사건이다.
- 올바르게는 ㄹ - ㄷ - ㄱ - ㄴ이다.

② X
- 틀린 부분: ㄴ을 가장 앞에 두었다.
- 배중손의 승화후 온 추대는 1270년 삼별초 항쟁 시기의 일로 네 사건 가운데 가장 늦다.
- 올바르게는 ㄹ - ㄷ - ㄱ - ㄴ이다.

③ X
- 틀린 부분: ㄷ 다음에 바로 ㄴ을 두었다.
- 별무반 조직 뒤에는 1231년 박서의 귀주 항전이 먼저 오고, 승화후 온 추대는 그보다 뒤의 1270년이다.
- 올바르게는 ㄹ - ㄷ - ㄱ - ㄴ이다.

④ O
- 강조의 패배(1010) → 별무반 조직(숙종 때) → 박서의 귀주 항전(1231) → 배중손의 승화후 온 추대(1270)의 순서가 맞다.

오답 포인트

박서의 귀주 항전과 배중손의 삼별초 항쟁을 모두 대외 항쟁으로만 묶어 두면 순서를 뒤섞기 쉽다. 또한 여진 대응을 위한 별무반 조직을 몽골 침입 이후 사건으로 착각하면 ㄷ의 위치를 잘못 잡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대외 관계 순서 문제는 상대 세력을 먼저 잡으면 정리가 쉽다. 거란 침입은 11세기 초, 여진 대응과 별무반은 12세기 초, 몽골 침입은 13세기 전반, 삼별초 항쟁은 1270년대 초로 묶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거란 강조 → 여진 별무반 → 몽골 박서 → 삼별초 배중손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왕께서 집현전 부제학 신(臣) 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였습니다. 이에 동방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열람하여 효자·충신·열녀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 만한 자를 각각 1백 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였으며,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 편찬을 마치니, _____㉠_____(이)라고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로 하여금 인쇄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① 『입학도설』
② 『국조오례의』
③ 『소학』
④ 『삼강행실도』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설순이 편찬하고 효자·충신·열녀 각 100인의 행적을 그림과 글로 엮은 세종 대의 교화서 『삼강행실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설순 등이 편찬한 교화서로, 효자·충신·열녀의 사례를 그림과 함께 실어 유교 윤리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지녔다.
『입학도설』은 권근이 성리학의 기본 내용을 도설로 정리한 입문서이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국가 의례인 오례를 정리한 예서이다.
『소학』은 중국에서 편찬된 유학 입문서로 아동 교육과 생활 규범을 담은 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입학도설』은 권근이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그림과 설명으로 정리한 책이므로, 효자·충신·열녀 각 100인의 행적을 수록한 책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행실 사례집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성리학 입문서이다.
② X. 『국조오례의』는 길례·가례·빈례·군례·흉례의 국가 의례를 정리한 책이므로, 설순이 편찬한 교화용 행실서와 다르다. 틀린 표현은 효자·충신·열녀 이야기 모음으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조선의 국가 의례서이다.
③ X. 『소학』은 중국 유학의 초학 교재로 일상 윤리와 수양 규범을 담은 책이다. 틀린 표현은 조선에서 설순이 편찬한 그림 행실서로 보는 점이며, 올바르게는 중국의 유학 입문서이다.
④ O. 효자·충신·열녀를 각각 100명씩 뽑고, 앞에 그림을 두고 뒤에 사실과 시를 붙였으며, 주자소에서 인쇄해 보급했다는 설명은 『삼강행실도』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유교 교육이나 통치 질서와 관련된 책이라는 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 단서는 설순, 효자·충신·열녀 각 100인, 그림과 사실 기록, 주자소 인쇄이다. 이 조합은 『삼강행실도』에만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서적을 묻는 문제에서 효자·충신·열녀의 행적을 그림과 함께 실었다는 설명이 나오면 먼저 『삼강행실도』를 떠올린다. 성리학 이론 도식이면 『입학도설』, 국가 의례 정리면 『국조오례의』, 아동용 유학 입문서면 『소학』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설순, 효자·충신·열녀, 그림, 주자소 인쇄가 함께 나오면 『삼강행실도』이다.

NoteBase

문 11.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경의 우창(右倉)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되었다.

② 양안과 호적 작성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다.

③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철전, 은병 등이 주조되었다.

④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방에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의 경창 운영, 토지·호구 파악, 화폐 유통, 농업 기술 확산 등 경제 활동의 기본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경창은 개경의 중앙 창고 체계이다. 좌창은 관리의 녹봉 지급에 주로 쓰였고, 우창은 왕실 공상·제사·사신 접대 같은 국가적 수요에 주로 쓰였다.
양안은 토지 대장이고 호적은 인구 대장이다. 두 장부는 부세 부과와 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고려는 철전·은병 등을 주조하여 상업 활동을 촉진하려 했고,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우창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출되었다'는 표현이다. 관리의 녹봉 지급에 쓰인 것은 우창이 아니라 좌창이다. 우창의 곡식은 왕실 공상, 제사, 사신 접대, 궁궐 건축 같은 용도에 주로 사용되었다.
② O: 양안은 토지, 호적은 인구를 파악하는 장부이므로 국가가 세금과 역의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재정 규모를 운영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기본 장부라는 점에서 옳다.
③ O: 고려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철전과 은병을 주조하여 유통시키려 하였다. 특히 숙종 때 은병이 주조되었고, 철전 등 화폐 사용도 장려되었다.
④ O: 모내기법은 조선 후기의 전국적 확산으로 더 유명하지만, 그보다 앞선 고려 말에도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미 보급되고 있었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①의 좌창과 우창을 바꿔 놓은 점이다. 경창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기능이 달랐다. 또 ④는 모내기법의 전국적 확산 시기를 조선 후기로 알고 있으면 고려 말의 부분 보급 사실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경제사 선지는 창고의 기능, 장부의 성격, 화폐의 종류, 농법의 확산 시기를 각각 연결해서 판단하면 된다. 특히 '좌창-녹봉, 우창-공상'처럼 짝을 먼저 확인하면 바꿔치기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좌창은 녹봉, 우창은 공상이다. 양안은 토지, 호적은 인구이다. 고려 말 남부 일부에 모내기법이 보였다.

NoteBase

문 12. <보기>의 ㉠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한동안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종은 재위 8년 무렵 반정 3인방이 모두 사망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구했다. 그때 중종의 눈에 들어온 ____㉠____은(는) 사림파의 선두 주자였다. 그는 1510년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1515년 별시에 급제하여 국왕인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왕을 측근에서 보필하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1518년 대사헌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였다.

① 『소학』과 향약(鄕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②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된 무오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③ 방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④ 위훈삭제로 구세력을 제거하고 신진세력 중심으로 정치판을 재편하려 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중종 때 사림 정치를 이끈 조광조를 식별하고, 그의 개혁 내용과 최후를 다른 사화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조광조는 중종 때 등용된 사림의 대표 인물로, 현량과 시행과 소학·향약 보급을 통해 성리학적 개혁 정치를 추진한 인물이다.
조광조는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 위훈 삭제를 추진하며 훈구 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조광조의 최후는 무오사화가 아니라 1519년 기묘사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광조는 성리학적 향촌 질서를 세우기 위해 『소학』을 중시하고 향약의 보급을 추진하였다.
② X: 틀린 부분은 '무오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이다. 올바르게는 조광조는 1519년 기묘사화로 사사되었고, 무오사화는 1498년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③ O: 조광조는 공납을 대신 바쳐 주며 폭리를 취하던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아 민생 부담을 덜고자 하였다.
④ O: 조광조는 위훈 삭제를 통해 반정 공신 가운데 부당하게 책록된 공훈을 지우고, 훈구를 억제하며 사림 중심으로 정국을 재편하려 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광조와 관련된 개혁 조치는 잘 기억하면서도, 그가 희생된 사화를 무오사화로 바꾸어 놓으면 쉽게 흔들린다. 조광조의 죽음은 기묘사화이고,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과 사초 문제가 연결된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광조가 보이면 소학·향약·현량과·위훈 삭제 같은 개혁 키워드를 먼저 연결하고, 최후를 묻는 선지는 기묘사화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조광조는 소학·향약·현량과·위훈 삭제를 추진한 사림 개혁가이며, 최후는 기묘사화이다.

NoteBase

문 13. 조선 후기에 <보기>의 주장을 펼친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은?

<보기>
재물은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파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수공업자)이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예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사 · 농 · 공 · 상 사민(四民)이 모두 곤궁해져서 도울 수 없게 된다.

① 『반계수록』
② 『북학의』
③ 『곽우록』
④ 『흠흠신서』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의 소비 촉진·상공업 진흥 주장과 그 저술인 『북학의』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박제가: 북학파, 『북학의』 —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이고 소비와 유통을 늘려 생산과 상공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유형원: 중농학파, 『반계수록』 — 토지 제도와 신분·군역 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업 중심의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익: 성호학파, 『곽우록』 —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책을 제시하며 토지 문제 해결과 민생 안정에 관심을 두었다.
정약용: 실학 집대성, 『흠흠신서』 — 형벌과 재판의 공정한 운영 원칙을 정리한 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반계수록』은 유형원의 저술이다. 유형원은 균전론 등 토지 제도 개혁을 주장한 인물로, 제시문처럼 소비 확대와 상공업 진흥을 강조한 박제가와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반계수록』이다. 올바르게는 박제가의 저술은 『북학의』이다.
② O: 『북학의』는 박제가의 저술이다. 제시문은 재물이 우물물처럼 써야 다시 생긴다고 보며 소비가 생산과 기술을 살린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전개한 북학론과 정확히 일치한다.
③ X: 『곽우록』은 이익의 저술이다. 이익은 성호학파를 대표하며 사회 개혁과 민생 문제를 다루었지만, 제시문처럼 소비 진작과 상공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인물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곽우록』이다. 올바르게는 박제가의 저술은 『북학의』이다.
④ X: 『흠흠신서』는 정약용의 저술이다. 이 책은 형벌과 재판의 운용을 다룬 것으로, 청 문물 수용이나 상공업 진흥을 주장한 박제가의 저술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흠흠신서』이다. 올바르게는 박제가의 저술은 『북학의』이다.

오답 포인트

실학자와 저술을 넓게만 묶어 기억하면 혼동하기 쉽다. 특히 『반계수록』, 『곽우록』, 『흠흠신서』처럼 조선 후기 개혁서를 함께 외우면 모두 실학 계열 저술로 보여 헷갈리지만, 제시문의 핵심은 소비 촉진과 상공업 진흥이라는 박제가만의 주장이라는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실학자 저술 문제는 먼저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 인물과 연결하면 된다. 소비 확대, 수레·선박 이용, 청 문물 수용, 상공업 진흥이 나오면 박제가와 『북학의』를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박제가-『북학의』-북학파-소비 촉진·상공업 진흥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4. <보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조선시대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경연(經筵)을 주관하였다.
• 매일 아침 신하들이 임금에게 정사를 보고하던 상참(常參) 등에 참여하여 국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①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② 사간원·사헌부와 함께 삼사를 구성하였다.
③ 외교 문서와 사초를 작성하였다.
④ 소속 관원은 청요직이라 하여 선망의 대상이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홍문관의 기능을 예문관·춘추관의 기능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홍문관은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경연을 주관하며 국왕의 자문에 응하던 언론 기관이다.
예문관은 외교 문서와 왕명의 문한을 담당하던 기관이다.
춘추관은 시정기를 바탕으로 사초를 작성하여 실록 편찬의 기초를 마련하던 기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홍문관은 옥당이라고도 불렸다. 홍문관 관원은 학문과 언론 기능을 함께 맡았다.

② O
홍문관은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삼사를 구성하였다. 삼사는 언론 기능을 통해 왕권과 관료 정치를 견제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외교 문서와 사초를 작성하였다'이다. 외교 문서는 예문관의 업무이고, 사초 작성은 춘추관의 사관이 담당하였다. 홍문관은 경연 주관과 자문, 서적 관리, 언론 활동이 중심이었다.

④ O
홍문관 관원은 청요직으로 여겨져 문신들이 선망하였다. 학식과 명망이 요구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오답 포인트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은 모두 문한과 학문에 관련된 기관처럼 보여 기능이 쉽게 섞인다. ③은 홍문관의 언론·자문 기능에 예문관의 외교 문서 업무와 춘추관의 사초 작성 업무를 붙여 놓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연 주관, 왕의 자문, 상참 참여, 옥당, 삼사라는 단서가 보이면 홍문관을 먼저 떠올린다. 외교 문서가 나오면 예문관, 사초와 실록의 기초 자료가 나오면 춘추관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홍문관은 옥당·경연·삼사, 예문관은 외교 문서, 춘추관은 사초이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은?

• 이상설 등이 권업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① 서간도
② 북간도
③ 연해주
④ 미주지역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권업회와 대한 광복군 정부를 단서로 독립운동 근거지인 연해주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연해주는 이상설 등이 권업회를 조직하고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세운 지역이다.
서간도는 경학사,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계열의 근거지이다.
북간도는 명동 학교, 중광단, 북로 군정서 등과 연결된다.
미주 지역은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외교 독립운동과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서간도는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가 전개된 지역이다. 보기의 '권업회'와 '대한 광복군 정부'를 서간도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연해주와 연결된다.
2번 X: 북간도는 대성학교, 명동학교, 중광단, 북로 군정서 등과 관련이 깊다. 보기의 단체와 정부 조직은 북간도가 아니라 연해주에서 전개되었다.
3번 O: 이상설 등이 권업회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높였고,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 광복군 정부도 연해주에서 조직되었다.
4번 X: 미주 지역은 대한인국민회, 흥사단, 외교 활동, 독립 공채 발행 등이 핵심이다. 보기의 독립운동을 미주 지역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고, 올바르게는 연해주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서간도·북간도·연해주·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를 지역별로 섞어 놓으면 헷갈리기 쉽다. 특히 이상설, 이동휘, 권업회, 대한 광복군 정부가 보이면 연해주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 문제는 인물보다 단체와 기관의 고정 연결을 먼저 본다. 권업회와 대한 광복군 정부가 나오면 연해주, 신흥무관학교가 나오면 서간도, 북로 군정서가 나오면 북간도, 대한인국민회가 나오면 미주 지역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권업회·대한 광복군 정부·이상설·이동휘는 연해주 묶음이다.

NoteBase

문 16. <보기>의 비석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①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② 미국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였다.
③ 부산, 인천, 원산 항구를 개항하였다.
④ 구식 군인들이 반외세 운동을 일으켰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척화비 건립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을 다른 근대 대외 사건들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척화비는 흥선 대원군이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배격하자는 뜻으로 세운 비석이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거치며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강화되었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운 직접적 계기는 신미양요였다.

선지별 해설

1번 X: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한 것은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이다. 이는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므로 척화비 건립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를 척화비의 직접 계기로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신미양요 때 미국이 강화도 일대를 공격하고 초지진·덕진진을 점령한 일이 직접 계기이다.
2번 O: 미국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한 것은 1871년 신미양요의 내용이다. 흥선 대원군은 이 사건 뒤에 서양과의 통상을 배격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려고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3번 X: 부산·인천·원산의 개항은 강화도 조약과 그 뒤의 개항 과정에 해당한다. 이는 척화비를 세워 통상 수교 거부를 내세우던 시기 이후의 흐름이므로 직접 원인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부산, 인천, 원산 항구를 개항하였다'를 원인으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개항은 척화비 건립 이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이 흔들리며 나타난 결과적 변화이다.
4번 X: 구식 군인의 반외세 운동은 1882년 임오군란을 가리킨다. 이는 개화 정책과 군제 차별에 대한 반발이 중심이 된 사건으로 척화비 건립보다 뒤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구식 군인들이 반외세 운동을 일으켰다'를 직접 계기로 본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척화비는 임오군란보다 앞선 신미양요 직후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상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서양 세력의 침략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1번이나 4번으로 가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사건의 성격보다 시기 순서와 주체를 구분해야 하며, 척화비는 미국과의 무력 충돌인 신미양요 직후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척화비가 보이면 먼저 흥선 대원군의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떠올리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중 전국에 비석을 세우게 만든 직접 계기를 찾는다. 이후의 운요호 사건, 개항, 임오군란처럼 개항기 후반 사건은 배제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척화비는 흥선 대원군, 신미양요 직후,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상징이다.

NoteBase

문 17. 〈보기〉의 지리서를 편찬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아방강역고』
ㄴ. 『동국여지승람』
ㄷ. 『신찬팔도지리지』
ㄹ. 『동국지리지』

① ㄱ-ㄹ-ㄴ-ㄷ
② ㄴ-ㄷ-ㄹ-ㄱ
③ ㄷ-ㄴ-ㄹ-ㄱ
④ ㄹ-ㄴ-ㄱ-ㄷ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전기 관찬 지리지와 조선 후기 역사지리서의 편찬 순서를 시대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1. 『신찬팔도지리지』 — 세종 때인 1425년에 편찬된 초기 전국 지리지이다.
2. 『동국여지승람』 — 성종 때인 1481년에 편찬된 대표적 관찬 지리서이다.
3. 『동국지리지』 — 한백겸이 1615년경 편찬한 역사지리서이다.
4. 『아방강역고』 — 정약용이 1811년에 편찬한 역사지리서이다.

왜 이 순서인가: 조선 전기 관찬 지리지인 『신찬팔도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이 먼저 나오고, 이후 조선 중기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조선 후기 정약용의 『아방강역고』가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아방강역고』를 맨 앞에 둔 것이 틀리다. 『아방강역고』는 1811년 편찬으로 네 책 가운데 가장 늦다. 틀린 표현은 'ㄱ이 가장 이르다'라는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아방강역고』는 맨 뒤에 와야 한다.
2번: X. 『동국여지승람』을 『신찬팔도지리지』보다 앞에 둔 것이 틀리다. 『신찬팔도지리지』는 1425년,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이므로 ㄷ이 ㄴ보다 먼저이다. 틀린 표현은 'ㄴ-ㄷ'의 선후관계이다. 올바르게는 'ㄷ-ㄴ'이다.
3번: O. 『신찬팔도지리지』(1425) → 『동국여지승람』(1481) → 『동국지리지』(1615경) → 『아방강역고』(1811)의 순서이므로 편찬 순서가 맞다.
4번: X. 『동국지리지』를 『동국여지승람』보다 앞에 둔 것과 『신찬팔도지리지』를 맨 뒤에 둔 것이 모두 틀리다. 『동국지리지』는 조선 중기 역사지리서이고 『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서이다. 틀린 표현은 'ㄹ-ㄴ'과 끝의 '…-ㄷ' 배열이다. 올바르게는 『신찬팔도지리지』가 가장 먼저 오고 『아방강역고』가 가장 나중에 온다.

오답 포인트

『동국여지승람』과 『동국지리지』처럼 제목이 비슷한 책을 같은 시기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또한 『아방강역고』는 실학자 정약용의 저술이므로 조선 후기라는 시대 감각만 잡아도 맨 앞에 둘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리서 순서 문제는 먼저 조선 전기 관찬 지리지인지, 조선 중기 사찬 역사지리서인지, 조선 후기 실학자 저술인지를 구분한 뒤 배열하면 된다. 세종·성종 시기 책이 먼저 오고, 한백겸과 정약용의 저술이 뒤에 온다고 판단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신찬팔도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 동국지리지 → 아방강역고의 흐름은 '세종 관찬, 성종 관찬, 한백겸, 정약용'의 순서이다.

NoteBase

문 18. <보기>에 제시된 두 정책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각 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하였다.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 모여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한강 밖으로 몰아냈다.
• 갑자년(1864) 초에 대원군이 강력히 중원(衆怨)을 책임지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2꾸러미를 바치게 하여, 이를 동포전이라고 칭하였다.

① 농민들의 봉기를 초래하였다.
② 유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③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④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에 기여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와 호포제가 공통으로 양반 기득권을 약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강한 정책이라는 점을 묻는다.

핵심 개념

서원 철폐는 면세와 향촌 지배의 근거가 되던 서원을 대폭 정리한 정책이다. 핵심 키워드는 양반 세력 억제와 재정 기반 회복이다.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여 군포 수취의 불평등을 줄인 정책이다. 핵심 키워드는 군포 부담의 확대와 재정 수입 증대이다.
두 정책의 공통 축은 양반의 특권을 손질하고 국가 재정과 통치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두 정책의 공통점을 농민 봉기로 연결한 것이 틀리다. 서원 철폐와 호포제는 흥선 대원군이 주도한 개혁 정책이며, 공통 결과는 농민 봉기가 아니라 양반 특권 억제와 재정 확충이다.
2번 X: '유생들의 지지를 받으며'가 틀리다. 서원 철폐는 유생의 거센 반발을 불렀고, 호포제도 양반층의 특권을 건드린 정책이어서 기득권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득권층의 반발 속에서 추진되었다.
3번 X: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틀리다. 두 정책은 양반 특권을 약화했지만 신분제 폐지를 직접 가져온 정책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신분 질서의 동요를 보여 준 개혁이지만 신분제 폐지의 직접 계기는 아니다.
4번 O: 서원 철폐는 서원의 면세 특권과 경제 기반을 정리해 국가 재정 회복에 도움이 되었고, 호포제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하게 하여 재정 수입을 늘렸다.

오답 포인트

서원 철폐를 유생 탄압이나 교육 기관 정리로만 외우고, 호포제를 군포 제도 개편으로만 따로 외우면 공통 효과를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은 두 정책의 대상은 달라도 둘 다 양반 특권을 누르고 재정을 넓혔다는 공통 결과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책이 둘 이상 제시되면 먼저 어떤 특권층을 건드렸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재정 확충과 왕권 강화에 연결되는지를 보면 공통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서원 철폐는 특권 서원 정리, 호포제는 양반 군포 부담, 공통 결론은 양반 억제와 재정 확대이다.

NoteBase

문 19. 〈보기〉의 (가)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나)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여한다.

①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②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③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정리에 나섰다.
④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미7조약과 한일 병합 조약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정미7조약 체결(1907) - 통감의 내정 지도가 제도화되었다.
2. 군대 해산 조칙 발표(1907), 사립학교령 공포(1908) - 대한제국의 군사력과 민족 교육을 통제하였다.
3.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1909) - 병합 직전 항일 의거가 전개되었다.
4. 한일 병합 조약 체결(1910) -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갔다.

왜 이 순서: 정미7조약으로 통감부 지배가 강화된 뒤 군대 해산과 식민 통제 정책이 이어졌고, 그 뒤 1909년 안중근 의거를 거쳐 1910년 병합으로 이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사립학교령은 1908년에 공포되었다. 정미7조약 이후 통감부가 사립학교를 통제하려고 만든 조치이므로 (가)와 (나) 사이의 사건이 맞다.
2번: O.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1907년 정미7조약 이후이고 1910년 한일 병합 이전이므로 시기상 맞다.
3번: X. 메가타 다네타로가 재정 고문으로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05년 무렵으로, 정미7조약보다 앞선 사건이다. 틀린 표현은 '사이에 일어났다'이고, 올바르게는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은 정미7조약 이전에 추진되었다'이다.
4번: O.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은 1907년 정미7조약 직후 발표되었다. 통감부의 내정 장악이 군대 해산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이므로 (가)와 (나) 사이의 사건이 맞다.

오답 포인트

통감부 시기의 침탈 정책을 한 시기에 몰아서 외우면 1905년의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과 1907년 이후의 군대 해산, 사립학교령, 1909년 안중근 의거가 뒤섞인다. 특히 메가타는 을사늑약 전후의 재정 침탈과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기 배열 문제는 조약이나 사건을 기준점으로 먼저 잡으면 판단이 쉬워진다. 이 문항에서는 1907년 정미7조약과 1910년 한일 병합을 축으로 놓고, 1905년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은 앞, 1908년 사립학교령과 1909년 안중근 의거는 사이에 배치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메가타 화폐 정리 1905, 정미7조약과 군대 해산 1907, 사립학교령 1908, 안중근 의거 1909, 한일 병합 1910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ㄱ과 ㄴ에 들어갈 인물들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1956년의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운 ㄱ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전체 유효표의 30%를 차지하였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① ㄱ: 조봉암, ㄴ: 장면

② ㄱ: 신익희, ㄴ: 장면

③ ㄱ: 조봉암, ㄴ: 김성수

④ ㄱ: 신익희, ㄴ: 김성수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와 선거 결과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조봉암은 진보당 후보로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워 대통령 선거에서 약 30%를 득표하였다.
장면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신익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으나 ㄱ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아니다.
김성수는 이 선거에서 민주당 부통령 당선자로 연결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ㄱ의 조봉암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워 약 30%를 득표한 인물이고, ㄴ의 장면은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꺾고 당선되었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표현은 ㄱ의 '신익희'이다. 평화 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워 약 30%를 득표한 인물은 신익희가 아니라 조봉암이다. ㄴ의 장면은 맞다.
③ X: 틀린 표현은 ㄴ의 '김성수'이다.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김성수가 아니라 장면이다. ㄱ의 조봉암은 맞다.
④ X: ㄱ의 '신익희'와 ㄴ의 '김성수'가 모두 틀리다. ㄱ은 조봉암으로, ㄴ은 장면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야당 계열 인물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신익희와 조봉암을 섞기 쉽고, 민주당 인물이라는 이유로 장면과 김성수를 함께 묶어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대통령 선거의 조봉암과 부통령 선거의 장면을 분리해 기억했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956년 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인물과 부통령 선거의 당선 인물을 따로 끊어 판단하면 된다. 평화 통일·혁신 노선과 30% 득표는 조봉암, 이기붕을 누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1956년 선거는 조봉암 30% 득표, 장면 부통령 당선으로 정리된다.

NoteBase